

여성우대 고용 불법

유럽재판소 “무조건 특혜는 역차별” 판결

【브뤼셀=AFP 로이터 연합】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17일 고용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우대를 규정한 여성취업 우대조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의 법적인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이 재판소의 이번 판결결정으로 이와 비슷한 역차별적인 취업여성 우대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노동조합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독일 브레멘 공인관리부의 남자 정원사가 여성고용을 특별조례로 자신이 여성동료에게 비해 승진에서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제소하는 데서 비롯

됐다.

독일 법원은 이 제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정부가 채용이나 승진에서 여성에게 일정한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소는 판결에서 “각국 정부가 고용정책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여성에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우대권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넬 반 디지크 유럽연합 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유럽 각국의 고용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유럽의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

회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 상반기 무역흑자 5백61억달러로 하락

【도쿄=외신종합】 일본의 95회계연도 상반기(95년 4월~9월) 무역수지 흑자는 통관기준 5백61억9천만달러로 올해 초 설정한 흑자목표액 5백92억1천만달러보다 적었다고 대장성이 18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겨는 대미 무역흑자는 2백33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71억만달러보다 19.0% 줄었다.